

피카소부터 이우환까지...가슴 떨리는 거장들의 향연

하정웅미술관 '하정웅컬렉션 1993-2018'展

'기증, 시대의 증언', '판으로 새긴 세계', '사유의 시간' 세계 섹션 작품 넘어 수집 과정·기록까지...작품 36점·아카이브 자료 선배

이우환, 박서보, 유영국 등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작품부터 피카소, 사강, 달리, 앤디 워홀 등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서양 현대미술 작가들의 판화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하정웅컬렉션 1993-2018' 전시다.

이번 전시는 하정웅 명예관장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시립미술관에 기증한 2천603점 가운데 주요 작품 36점을 선별해 보여준다. 이와 함께 관련 아카이브 자료도 소개한다. 작품뿐 아니라 수집의 배경과 기록까지 함께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컬렉션은 작가를 향한 개인적 관심과 지원에서 출발했다. 한때 화가를 꿈꾸기도 했던 하 명예관장은 재일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작품을 수집해 왔다. 전화를 시작으로 조양규, 송영옥, 문승근 등으로 이어지며 폭을 넓혀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과 함께 작

가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된다. 작품 기증 당시 운송 서류와 작가와의 서신 등은 단순한 부속 자료를 넘어 컬렉션이 형성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증 도록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기증, 시대의 증언', '판으로 새긴 세계', '사유의 시간' 세계 섹션으로 나뉜다.

먼저 '기증, 시대의 증언'에서는 재일 작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통해 컬렉션의 출발 배경을 짚는다. 하 명예관장의 수집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조명받지 못했던 작가들 작품이 미술관 소장품으로 편입됐으며, 이번 전시에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판으로 새긴 세계'에서는 1999년 2차 기증을 중심으로 구성된 판화 작품을 선보인다. 피카소, 달리, 사강, 워홀 등 세계적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판화가 지닌 복수성과 대중적 확장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사유의 시간' 섹션은 한국 추상미술 작가들의



이우환작 'Dialogue'

작업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이우환, 박서보, 유영국 등의 작품을 통해 반복과 물질성, 화면 위에 축적된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며 사유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공간은 조도를 낮춰 관람자가 작품 앞에서 천천히 머물며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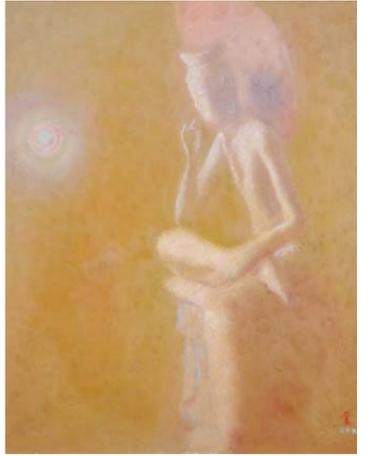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컬렉션을 '작품의 집합'이 아니라 '형성 과정과 정신'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



마르크 샤갈작 '파리의 기억'

명예관장은 작품뿐 아니라 작가의 자료와 기록까지 함께 수집하며,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자산으로 확장해 왔다.

김명지 학예연구사는 "재일 작가들의 작업이 컬렉션으로 축적되고 전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화환작 '미러보살'

연구와 대역 요청도 점차 늘고 있다"며 "하정웅 컬렉션이 한국 근현대미술의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익숙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미술관과 컬렉션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11월25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사계절 색으로 피어난 자연의 순환

김혁정 초대전 'Re:Connect-순환의 궤적'...내달 30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

자연의 순환과 사계절의 풍경을 다채로운 색채로 풀어낸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4월30일까지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김혁정 작가 초대전 'Re:Connect-순환의 궤적'이다. 전시에서는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에너지 담은 회화 작품 45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의 변화와 생명의 흐름을 수많은 색의 층과 점묘적 화면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캔버스를 촘촘히 채운 색의 입자들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면을 이루고, 가까이에서는 다양한 색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전한다. 이러한 색채의 흐름은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색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대형 연작들이 곡선형 벽면을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관람객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대표작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는

자연과 삶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담은 작품이다. 섬으로 표현된 고립된 순간 속에서도 생명과 감정, 성장의 가능성이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겨울에서 이른 봄 사이에 피어나는 동백꽃을 소재로 한 '동백꽃 피던 날'도 눈길을 끈다. 생명의 에너지와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이 어두운 배경과 대비를 이루면서 삶과 죽음, 고요함과 격렬함이 공존하는 인간의 경험을 표현한다.

사계절 연작 가운데 하나인 '여름' 작품에서는 눈부신 햇빛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의 감각을 강렬한 색채로 담았다. 자연이 지닌 에너지와 계절의 분위기를 화면 가득 채운 색의 흐름으로 표현해 계절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전한다.

김혁정 작가는 전남대에서 미술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파리 소르본 대학교 박사과정을 수



'섬으로 떠올라 꽃으로 피어나라'

료했다. 독일 루트비히스부르크 초대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10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프랑스 파리의 현대미술 전시 살롱 도톤(Salon d'Automne) 출품과 예술의전당 미술관 아트페어 참여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혁정 작가는 "삶은 자연과 함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쌓이며 피어나는 것"이라며 "꽃이 피는 결과보다 그 꽃을 피워내는 시간과 과정의 의미를 작품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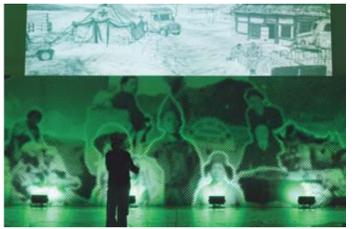
ACC '잊어버린 전쟁', SXSW 심사위원 특별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기획·제작한 '잊어버린 전쟁(The Forgotten War)'이 미국 '2026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XR 익스피리언스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SXSW는 매년 3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창의 산업 축제, 영화·음악·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특히 XR 익스피리언스 경쟁 부문은 실감형 콘텐츠의 미래를 제시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무대로, 전 세계 창작자들이 주목하는 분야로 꼽힌다.

이번 수상작 '잊어버린 전쟁'은 15개 경쟁작 가운데 한국과 아시아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최종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올해 해당 부문 수상은 대상과 심사위원 특별상 두 작품에만 주어졌다.

이 작품은 ACC 상호작용예술랩의 연구개발 성과로, 미디어아티스트 권하윤과 협업해 제작됐다. 6·25전쟁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지평리 전투'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관객이 가상 공간에서 인물의 기억과 마주하는



'잊어버린 전쟁'(The Forgotten War)

위치기반 상호작용형 가상현실(VR) 형식으로 구현했다.

SXSW 심사위원단은 "신체적 몰입과 증언을 통해 전쟁의 깊은 상처를 성찰하게 하며, 몰입형 스토리텔링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강력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상은 ACC가 창제작과 유동을 아우르는 융복합 예술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개발 기반의 창제작 시스템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명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